

Christian

# Up grade

크리스찬 업그레이드 2007.5-6

Vol. 57

## 특집

철저한 헌신  
-그리스도인의 특권-

- 세상을 향한 기독교 팬시용품
- 온전한 헌신
-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 가시적인 성공
- I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가?
- 파울리의 선행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운동  
[CLM] <http://www.clm.or.kr>

##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운동 정신

- 철저히 헌신된 삶
  - 십자가를 지는 삶
  -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 전인격적인 신앙
  -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 창조 질서 회복과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

###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운동 선서(10가지 고백과 다짐)

1.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함'을 인정합니다.
2.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존재이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3.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가치와 세계관으로 물들어 있음을 인식하며 그것과 맞서 싸워야 할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4. 우리는 타락한 육체를 가진 자로서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세상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완악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5.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 타락해있고, 부패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6. 우리는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말씀묵상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7.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여 나의 삶 속에 적용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8. 우리는 삶의 전 영역(가정, 교육, 돈, 도덕, 복지, 미디어, 안식, 이웃, 정치, 환경)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알고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9.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10. 우리는 매일 매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각성되어져야 하며, 같이 힘을 합하여 도움을 주고받을 공동체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Contents

- 3 특집: 철저한 헌신
- 4 세상을 향한 기독교 팬시용품
- 12 온전한 헌신
- 14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 28 가시적인 성공 -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가?
- 34 파울리의 선행
- 51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생활실천(5-6월)

크.리.스.찬.업.그.레.이.드

특집

그리스도인의 특권

철저한 헌신

## 철저한 헌신 -그리스도인의 특권-

헌신이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 정의되어 있다. 자기부인과 자기희생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신은 언뜻 생각할 때 힘들고 괴로운 일이며 따라서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온다.

하지만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헌신이야말로 참된 자유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며 자신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문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그냥 누리거나 소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 우리 자신을 드러서 일할 수 있는 대상, 우리가 몰두할 수 있는 대상을 항상 추구한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 삶은 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대상이 연인이건 자식이건 이웃이건 간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간에, 그저 당신이 존재함으로 고맙다고, 행복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너무도 합당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벅찬 일이며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다. 이분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구주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앞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자나 깨나 예수님 사랑,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과 함께 너무도 눈부신 5월을 맞이하여 크리스찬업그레이드 독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힘차게 돌아나기를 소망한다.

## 세상을 향한 기독교 팬시용품

김신정 목사

### 메시지를 가진 팬시 용품들

얼마 전에 팬시용품과 문구를 파는 곳에 갔다가 mmmg라는 고급 팬시용품을 본적이 있었다. 첫째 놀란 것은 가격이 높다는 것이었다. 별로 대단한 물건 같지 않는데 보통 상품들의 3배 이상의 가격이었다. 그리고 그 물건이 잘 팔린다는 것이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은 디자인에 얼마나 민

감하고 또 좋은 상품, 예쁜 상품에 대해 얼마나 열광하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게 느껴지고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 상품들이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메시지는 그 용품에 문자로 기록되기도 하고 또는 그림으로 표시되기도 했는데 스마일 표시나 반전 표시 같은 것도 있었다. 그리고 "You are not ugly"같은 문자 메시지도 있었다. 이런 메시지와 메시지가 담고 있는 분위기가 이 상품의 매력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았다.

그 메시지들 중에서 한 가지 더 눈을 끄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Someday I will fly away" 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어디론가 날라 갈 것이다" 라는 문장이 들어 있는 상품이었다. 이 상품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YOU ARE NOT UGLY

christian upgrade \_5, 6월 호

첫째는 사람들이 이 문구가 들어있는 상품을 보면서 자신만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문구가 들어있는 상품에 더 매력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하는 생각이었다.

또 하나의 생각은 이런 문구들이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런 문구들이 전파하는 문화와 사상이 있어서 특정한 메시지를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용품들을 통해 염세적이거나 건강하지 않은 메시지도 전달 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아주 좋은 메시지를 세상에 파급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최종으로 도달한 생각은 ‘이 용품들



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담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Someday I will fly away”가 아니라 “Someday I will fly to the heaven” (언젠가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라고 쓴다면 사람들에게 기독교적인 문화와 생각을 전달하고 파급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christian upgrade 5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안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일들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다.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것,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법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독교적인 생각들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비기독교적인 메시지에 노출되고 또 은연중에 오염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청소년들(성인들도 포함)은 알지 못하는 중에 세상적인 물질주의나 포스터모던적인 사상을 가진 많은 메시지들에 주입되고 있다. 그래서 점점 감성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괴리가 생기는 현상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경험되는 일이다.

만약 기독교적 메시지가 담긴 많은 용품들이 있다면 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 많은 것들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더 신앙적으로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독교 용품과 기독교적 용품

기독교서점이나 기독교 백화점에 방문해보면 많은 기독교 용품들이 있다. 십자가를 비롯해서 성구가 적힌 액자 등 많은 상품들이 있고 요즘은 점점 양과 질에서 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물건들은 대체로 교회에서 사용하거나 기독교인들에게만 필요한 용품인 경우가 많다. 즉 일상적인 용품이 아니라 기독교 용품이라는 것이다. 교회적인 필요나 특별한 신앙적인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일반 용품과 구별되고 특별한 용도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도용, 교회 선물



용, 또는 신앙을 나타내기 위한 용도 등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기독교 용품들은 일반 상품들과는 다르게 분류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장소에서 판매된다. 이런 이유로 기존의 기독교 용품들은 세상에 나아가기 보다는 교회 안에서 또는 신앙인들 안에서 사용되는 용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뛰어 넘는 ‘기독교적 용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일반용품으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상품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기독교 백화점이나 서점에서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문구점에서 또는 팬시점에서 또는 일반 쇼퍼센터에서 팔리는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물건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일반 세상에서 경쟁력을 가질만한 품질과 디자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일반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줄 수 있



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적이면서도 일반 사람들에게도 공감이 되고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는 상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불가능하거나 도달하기 힘든 정도의 일은 결코 아니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은 사람들을 향해 있고 그 메시지는 진리이다. 따라서 어떻게 문구를 만들고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적인 상품’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는 생각이다.

누군가 이일에 성공해서 ‘기독교적인 상품들’이 세상에 많이 통용되어 믿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격려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직간접적으로 전달 되고 스며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역이고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용품’을 위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에 미국의 기독교 쇼핑몰 한곳과 기독교(적) 상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독교상품’과 ‘기독교적 상품’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미국의 경우도 그것이 특별히 구별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한국의

교인 대상의 기독교 용품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가가고 도움을 주는 기독교적 용품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미국의 기독교 의류쇼핑몰

C28 - [www.c28.com](http://www.c28.com)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C28이라는 기독교의류를 제작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곳으로 아래 내용은 홈페이지에 소개된 회사 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C28은 주류 쇼핑센터 상점들에 대안을 제시하는 기독교 소매점 사슬이다. 기독교 의류, 음악, 보석 및 부속품은 청결하고 긍정적인 기독교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C28은 골로새서 2:8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세사의 것이 아닌(NOTW) 오직 주님만!’ (Not Of This World (NOTW), and all about Jesus!)

C28은 청년 사역자들에게 모든 구입금액의 특정 부분을 기증한다. C28의 사명은 생활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총, 진실 및 사랑의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다. C28 개업 후 지난 5년 동안 81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의 메시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주님 만!

골 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우리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과 진리와 은혜의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막 16: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골 4:2-5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는 뿌리 없는 화려한 거목을 세우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씨가 되어 낮고 어두운 곳에서 희생함으로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묘목이 되려고 해야 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을 수 없는 화려한 거목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화려함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음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이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기 때문이다.

## C28에 관한 빈번한 질문과 대답

### C28은 무엇입니까?

C28 기독교 상점은 주류 쇼핑물에 대안을 제시한다. 우리 제품은 순결하고 긍정적인 기독교 생활양식을 반영한다. C28는 골로새서(Colossians) 2장 8절을 의미한다.

### C28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Aurelio 그리고 그의 아들 JR Aurelio가 Victorville를 여행하면서, "Christian 'Head-shop'"이라 칭한 상점에 들어갔는데 그 상점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때 주님은 그들에게 전국의 쇼핑물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 사람들이 C28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료로 성경을 주고 현지 교회로 그들을 보낸다. 우리는 또한 그들을 성경 공부에 참여하도록 권한다.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는 성령과 성경을 통하여 그들이 주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한다. 행 8:26

### 패션과 믿음을 섞을 때의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증인의 옷"은 순수하고 긍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과 복음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 사람들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의 메시지를 가진 셔츠를 입습니까? 아니면 다만 패션 감각으로(cool 해 보이려고) 입습니까?

어느 경우이건, 주님의 말씀은 헛되게 돌아오지는 않는다.

### 왜 C28 상점들은 세속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C28 상점이 청년 문화에 관련어 있긴 하지만 C28 상점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당

당하다! 그곳은 복음전도의 장소이고 제자도와 친교 및 기도의 공간이다.

**C28은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기부합니까?**

현재까지는 우리에게 이익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청년 사역자들에게 판매수익의 일부분을 기부하고 있다.

**당신은 단순히 틴에이저에게 초점을 맞춰서 돈을 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81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영접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의 사역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시장에서 "환전상"의 책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C28에게도 똑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배 장소에서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다.

**C28 쇼핑몰은 왜 주일에도 열려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군가 안식일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한다. 신자는 형식주의에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다.

**당신은 왜 사업과 믿음을 혼합합니까?**

세상의 일에서 세속적인 일 (사업)과 신성한 일을 분리한 것은 고대 희랍 사람이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말씀한다.

**당신의 가격은 왜 높습니까?**

우리 쇼핑몰은 아주 임대료가 높은 곳에 입점해 있다. 우리의 가격은 다른 쇼핑센터 상점 보다는 더 낮거나 동일하다.

**왜 사역뿐만 아니라 상점 판매에 초점을 둥니까?**

우리는 직원, 쇼핑센터 및 공급자에게 지불해야만 한다. 판매 없이는, C28 사역은 확장될 수 없고 계속될 수도 없다.

**왜 C28 상점이 더 없습니까?**

C28 상점을 개장하는데 약 300,000\$이 들기 때문이다.

**C28 상점을 프랜차이즈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맨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 최소한 3-5 상점의 영역, 자본에서 1백만\$ 및 입증된 사업 경험이 필요하다.



## 온전한 헌신

William Medonald

세상의 구주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조만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를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어떤 한 부분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실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못한 순종과 나눠진 충성은 이곳에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얻으시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철저히 한 번 숙고해 본다면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극단적이고 광신적이고 세상에 낯선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음을 거듭 깨닫게 될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편안하게 자기만족에 빠져 우리 주위환경의 대세에 순응하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명백히 그리 우회적이지 않은 우리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

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는 그렇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후로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 또한 믿어야만 한다. 주님께서는 이기적이고 야심에 찬 향락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그리고 주님 앞에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이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 주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뿐이다.

그리스도 없이 죽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받는가? 우리는 이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때 이와 연결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것을 진짜 믿을 수는 없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구속력이 생긴다. 우리에게 너무 늦기 전에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나락에서 구

이 글은 윌리엄 맥도널드의 책  
‘먼저 구하라(독일 CLV출판사, 1991)’ 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christian upgrade 5, 6월호

해 내는 급박한 임무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은사들과 재물을 투자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가?  
우리 대부분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  
었다는 것을 끝까지 변호할 것이다. 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한번이라도 성경을 부지런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연구함 없이 수만 가지 다  
른 일들에 몰두한다. 우리는 성경이 금광과  
같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웬  
일인지 다른 일들을 추구할 때처럼 이 금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기초적인 진리이다. 그  
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의 존엄성과 가  
치에 대해 그다지 큰 인상을 받지 못한 듯이  
행동한다. 많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직무를  
얻기 위해 열심을 내는데 우리는 유감스럽게

도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을 첫째 자리에서 덜  
중요한 자리로 제쳐 놓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요구하신다. 진리  
는 전인(全人)을 요구한다. 사탄과 세상은 적  
은 것으로도 만족하지만 주 예수님께서는 온전  
한 헌신을 기대하실 모든 권리가 있다.

우리가 한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헨  
리 드럼몬드(Henry Drummond)의 다음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의향이 없  
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손을 떼  
라. 만약 당신이 그 나라를 두 번째로 구한다  
면 나는 당신의 삶이 가련한 것이 될 것이라  
약속할 수 있다.”

##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William McDonald

“거대한 마법의 주문이자 시대적 기만인 교육은 삶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우리를 기만하며 청소년범죄에서부터 앞당겨진 고령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한 치유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대부분 어리석음을 키우고 허영심을 촉진하며 경박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일에만 일조하고 있다. 교육은 흥하든지 망하든지 언론과 방송 그리고 텔레비전이 온전히 섬기고 있는 세뇌자들에게 자신의 추종자들을 넘기고 있다.”

말콤 머저리지(Malcolm Muggeridge)

크리스천 가정의 젊은이들이 구세주를 위해 교육되는 대신 세상을 위해, 천국을 위해 교육되는 대신 지옥을 위해 교육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만약 오늘날 평범한 크리스천 부모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입니

까?”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좋은 직업”이나 “경제적인 독립” 혹은 “가족을 부양하고 안정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아마 사람들은 서로 다른 표현을 쓰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든 대답들이 동일하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으며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이 시대 안에 밀어 넣기 위해 온갖 압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유명한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학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더 좋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명망 있는 회사에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확실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멋진 파티를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근사한 전원주택에 살며 부러움을 살 만한 가정을



이 글은 윌리엄 맥도널드의 책  
‘먼저 구하라(독일 CLV출판사, 1991)’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christian upgrade \_5, 6월호

꾸리고 우리가 젊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쉬어야 할 저녁시간과 주일의 시간을 지역교회에 너무 많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을 위한 일이 그들의 삶에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모가 어디에 있는가?

아들들에게 모든 사회적인 안락함과 모든 편안함을 포기하고 선교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아버지가 몇이나 있는가?

자신의 딸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어머니들이 몇이나 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 삶의 관점이 세상적으로 물들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천사를 위한

자녀들을 낳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최상의 달란트를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대한 기업을 위해 내어주게 될 세대를 양육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행하지 않을 일을 돈을 위해서 행하게 될 것이다!

대학교  
부모의 압력은 대부분 자녀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될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녀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리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 아이가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전혀 관심 밖이다. 아이는 절대적으로 대학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교회의 다른 젊은이들도 결국 모두 대학에 가게 된다.

자신의 자녀들이 어쩌면 수공업적인 직업에 더 알맞은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부모들은 전혀 안하는 듯 보인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주로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로써 시간

과 개인적인 은사의 대부분을 그리스도의 일을 진척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종종 수공업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직업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덧없는 사업에 삶의 모든 열정을 빼앗긴 사람 보다 더 이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부모들은 ‘대학졸업장 없이는 오늘날 아무런 기회가 없다’ 는 상투적인 틀에 온전히 사로잡혀 자녀들을 위해 다른 길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어떤 아버지들은 아들이나 딸이 집에 돌아와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선교단체에 들어가기 원한다고 말한다면 거의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충격을 받고 이렇게 외칠 것이다. “뭐라고, 네 삶의 가장 좋은 시기를 낭비하겠다고?”

나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아주 만족시키며 유명한 대학에 진학했던 젊은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다음 번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역시 신앙인이었던 아버지에게 대학을 떠나 주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러한 결정이 아들의 장래 성공을 위해 숙고해 놓았던 모든 계획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장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강력한 논거들을 아들에게 제시했다. 아버지는 머릿속으로 이미 그러한 결정에 따라올 사회적인 결점을 예견했다.

마지막으로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다. “아버지, 제가 계속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기를 원하



세요?” 다행이도 이로써 아버지의 모든 반대를 끝이 났다.

대학을 다니지 않았던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러한 특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더더욱 사로잡혀 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자녀의 영적인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인 속고되지 않은 맹목적인 열정이다.

대학교육에는 자신의 자리가 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못 자국 난 그리스도의 발에 속해 있다. 대학교육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세상적 성공의 허상을 잡으려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 대학교육이라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대학교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투자된 것이라면 정당한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부수적인 것으로 사람을 유인하는 길이라면 배설물로 여겨야 할 것이다.



“나는 수많은 표창장을 받았던 캠브리지의 졸업생 헨리 마르틴<sup>1)</sup>을 생각한다. 그는 대학에서 주는 명예를 간절히 원했었지만 정작 자신의 승리의 그 날이 되자 특별한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저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이는 은혜가 가득한 놀라움이었으며 성경에 의해 주어진 축복된 실망이었다. ‘주의 명령이 그 위에 임하시자’

- 
- 1) H. Martyn(1781-1812)은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뛰어난 학업 후 선교사로서 인도로 떠났다. 그곳에서 그는 신약성서를 우루어와 페르시아어로 번역했다.

그렇게 원했던 명성은 시들은 풀잎처럼 빛을 잃었다. 이러한 실망에는 은혜가 넘쳤다. 이제 헨리 마르틴의 눈은 대학의 표창장을 넘어 훨씬 더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주님의 영광을 본 이후로 그의 눈은 기경되지 않고 수확이 없는 주님의 밭의 엄청난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명확해졌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인도로 떠났다.”  
(J.W.Jowett)

우리의 크리스천 문화권에서 젊은이들이 스포츠 분야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애쓰는 일은 분명 정상적인 일이다. 북미 유럽의 대학들에선 스포츠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일류 팀에 들어 그가 다니는 대학을 타이틀을 가진 우수 팀으로 만든 뛰어난 젊은이는 아주 특별한 매력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몇몇 스포츠 종목은 또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아마 우리의 친절한 젊은 그리스도인은 시즌 중 인대가 늘어나거나 등뼈가 부러지거나 혹은 여가저기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그건 아주 정상적인 일이다! 기브스란 모든 사람들이 그 위에 자신의 사인을 남기기 위해 있고 목발도 항상 특정한 명예를 상징한

다. 우리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불행한 사고를 철학적인 태도로 대하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제 솔직해 보자. 우리는 세상의 구세주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에 나가는 우리의 용감한 영웅들에 대해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행복한가?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증언했다는 이유로 돌에 맞더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태도를 갖겠는가? 우리는 그들이 봄베이에서 길거리 집회를 개최할 때 관중이 가득 찬 축구장에서 경기하는 것과 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러나 이것은 ‘팬’과 ‘광신자’ 사이의 미묘한 차이이다. 축구시합에서 관중들은 자신의 팀을 목이 설 때까지 응원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을 ‘팬’이라 부른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기도집회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분투할 때는,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께 관해 이야기 할 때는(그래서 그들의 지적인 형제자매들을 당황하게 만들 때에는) ‘광신자’이다. 우리의 가치개념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 병역에 소집됨

다음으로 병역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자. 우리 아들들은 소집영장을 받게 되고 곧 군복을 입는다. 그리고 이 일에선 전혀 트집잡을 만한 게 없다, 안 그런가? 그들은 기동 훈련을 나가고, 철조망 바리케이드를 점령하고, 기관총사격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땅 밑을 기기도 하며 끝없이 먼 거리를 행진하기도 한다. 또 참호들과 피와 악취와 근심을 의미하는 전방에 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인다. “전쟁은 그런 것이다!” 만약 우리의 아들들이 전사를 당하면 우리는 “그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고 말한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에는 전혀 비난의 여지가 없다, 안 그런가?

그러나 그 일이 옳은 일일진대 우리가 아들들을 주 예수님께 바치는 일은 더더욱 옳은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거룩하고 사심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자신을 사용하고 또 주님께 쓰임 받도록 아들들을 격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삶과 죽음의 영광스러운 전망을 그들에게 보



여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다음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도록 너희의 아들들을 내어주라, 그들의 길을 평탄케 하도록 너희의 돈을

주어라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애쓰는 일에 너희 자신을 내 주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주었던 여러 배로 갚으신다.”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다르다.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선교현장에서 ‘잃어버린다’는 생각으로 신경이 곤두서게 된다. 이자벨 쿤(Isabel Kuhn)이 하나님께서 바다 건너의 땅으로 사역을 위해 자신을 부르셨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이 선한 부인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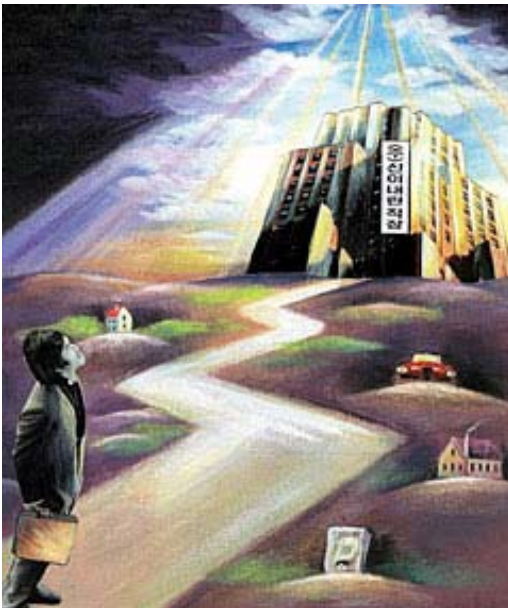
“내 송장을 밟고 가거라.” 그리고 결국 그 말대로 이자벨은 갔다...어머니의 송장을 밟고 (지극히 매정하게-역자 주).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집에서 사고를 당해 죽는 것이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죽는 것 보다 더 낫다고 여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들이 군인이 될 때에는 그들을 국가의 영웅으로 대우한다. 그렇지만 선교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는 심한 거부반응과 비난에 부딪히기 일쑤다.

언제부터 조국을 위해 죽는 것이 우리 구원의 지휘관을 위해 죽는 것보다 더 명예롭게 되었는가?(히2:10)

## 지위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을 얻어 급속한 승진을 이룬다면 우리는 정말 뿌듯한 성취감을 느낄 것이다. 그 때에는 편히 기대어 안도의 한숨을 내 쉴 수 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우리의 은밀한 신념을 드러낸다.



그 한 예는 다음과 같다.

“그래 아들 페터는 어떻게 지내는가? 잘 나가고 있나?”

“어 고맙네, 개는 진짜 잘 나가고 있지.”

“도대체 무얼 하는데?”

“아, 우리 아들은 쓸모없음 회사에서 클립을 만드는 부서의 부사장으로 있다네.”

“그래 아이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네. 그 아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의 일을 위해 시간을 낼 수가 있어야지.”

이 말이 상황을 정확히 말해준다! 그는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아주 잘 하고 있지만 진짜로 중요한 삶, 미래의 삶을 위해서는 그다지 잘 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이 그러하다. 페터는 주님을 위해 참된 잠재력을 지닌 열심 있는 젊은이이다. 그의 직업에서 일을 채 시작도 하기 전에 경영진은 그가 바로 필요한 자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는 곧 승진을 하고 더 높은 월급을 받는다. 물론 회사는 이제 그가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를 기대한다. 회사는 더 많은 그의 시간을 원한다. 회사는 그가 언젠라도 출장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대한다.

다.

승진을 계속할수록 그는 자신의 가정을 위한 시간이 더 적어지고 주님의 일을 위한 시간을 더더욱 적어지는 것을 깨닫는다. 잦은 출장으로 그는 더 이상 교회에서 지속적인 책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때때로 그는 과감하게 돌진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구원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지만 그는 함정에 빠져 있다. 점점 늘어나는 그의 가족과 그의 새집과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경제적 압박을 준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할지도 고려해야만 한다. 아마 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부인에게 더 견디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의 회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최대한의 에너지를 뽑아내는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 그는 언제나 압박, 압박, 또 압박을 받는다.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판매할당량은 늘고 부하직원들은 이미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언젠가 그는 마지막 승진을 할 것이다. 정상

은 힘들게 성취되었다.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 그의 손은 떨리기 시작하고 신경은 쇠약해지며 은퇴하기만을 바라게 된다. 그를 근심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가 자신의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회사에서 더 이상 그가 필요하지 않게 되면 그는 성대한 이별만찬과 함께 무력하게 밀려날 것이다. 그대서는 그는 자신의 삶의 최선의 것을 주님을 위해 드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단지 자신이 쓰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위가 결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대기업에서

승진을 위해 삶을 보내는 것 보다 진짜 더 좋은 일이 있다!

제니 린드(Jenny Lind)는 그녀가 가장 정상에 있을 때 무대를 떠났다. 하루는 그녀가 무릎 위에 성경을 놓고 동쪽 끝에 앉아 부드러운 밀물썰물과 멋진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왜 하필 최전성기에 그 보좌에서 내려왔냐고 물었다. 그녀는 펼쳐져 있는 성경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 자리는 내가 이것에 대해 거의 생각할 수 없게 했죠.” 그리고 이어서 웅장한 태양을 가리키며 “그리고 결코 그것을 생각할 수 없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미련 없이 훨씬 더 큰 삶을 위해 이것을 포기했어요.”

우리가 좋은 지위에 너무나 많은 가치를 두기 때문에 교회는 어쨌든 직업에 장단을 맞추고 세상은 복음을 듣지 못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름을 인정해 준다고 오해하지는 말라. 우리는 젊은이들이 사회의 이탈자가 되어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콜라나 마시고 가끔씩만 선교사역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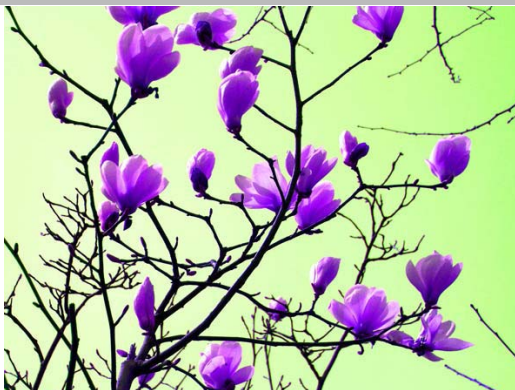


다. 결코 아니다! 우리는 강력하게 수입을 얻는 활동을 옹호한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문제이다. 지위는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이지만 이 지위를 가질 때 점점 커지는 요구들이 그리스도의 우선적인 요구에 복종해야만 하는 점도 있는 것이다.

## 모범적인 사례들의 위력

젊은이들은 바보가 아니다. 그 반대로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잘 판단할 수 있다. 그들은 펼쳐진 책처럼 어른들을 읽는다. 더 나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구원이나 헌신, 희생적인 자세에 관하여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선교 현장이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존엄성에 관하여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그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점에 서 측정될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책임을 맡은 형제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사업에 최우선을 두며 사치스럽게 사는 것을 본다면 그들이 그와 동일한 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될 수 없다.



우리는 40년간 일한 후 은퇴하는 것이 양도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라고 믿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이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이와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실망하지 말 일이다.

## 수많은 변명들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요구가 분명해 질 때 일반적으로 그들의 부모는 몇몇 케케묵은 신학적 논거들을 갖고 싸움터에 나간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렇다.

“누구나 갈 수는 없는 거다. 한 사람이라도 소유물 곁에 있어야지.”

이 ‘소유물 곁에 머물다’란 말은 이례적으

로 잘 알려져 있다.(삼상30:24) 그러나 다윗이 이 말을 했을 때 명백한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불순종하기 위한 핑계로 이것을 사용하라고 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소유물 곁에 머무는’ 인력이 감소할 위험은 실제로 전혀 없기 때문이다. 소유물은 잘 지켜진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는 것이다. 그 누구도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변명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 재계인사가 되어야만 한다!” 는 것이다.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바울은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황제의 집으로 초대되었다. 헌신적이었던 어린 하녀는 자신이 시중들던 부자들을 가까이 접할 수 있었다.

“손에 잡힐 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니라(잠30:28).”

이런 진부한 논거는 자신의 주인 보다 더 나은 형편 속에 사는 종이 너무도 자주 대는 핑계이다. 어떤 사람은 도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분명한 소명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 이때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우리 존재에 대한 이유이다. 우리는 단순한 장식품이 되거나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된 삶을 살라고 계획된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의 소명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다. 신약성서는 사람들이 텐트메이커나 어부 혹은 무두장이로 소명을 받았다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증인이 되도록 부름 받았다. 직업적 활동은 우리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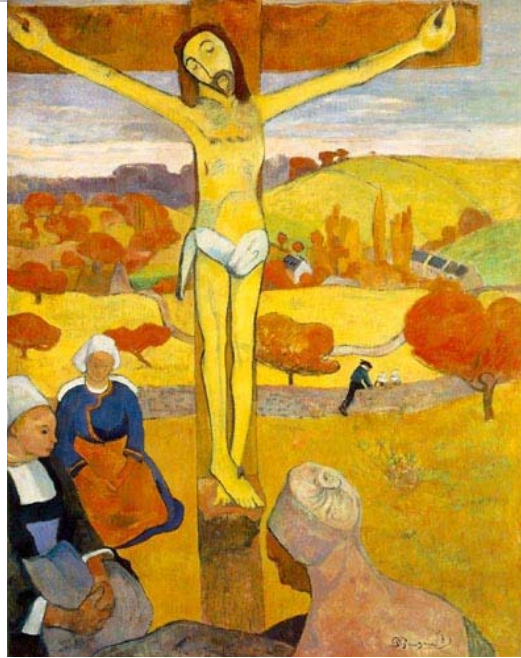
마지막 변명은 예민한 부모들의 근심에 찬 부  
탁이다. “집에 머물면서 돈을 많이 벌어 주  
님의 일을 후원해라.”

이는 매우 납득할만한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필요  
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간과되  
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하면서 나는  
기도를 통해 돈을 얻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  
임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을 위한  
기도를 통해 거역하는 사람들을 돌이켜 얻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 기초로 돌아가기

우리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으라고 가르친  
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고  
촉구하신다(눅14:33).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난한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눅  
6:20).”



우리는 자녀들에게 집에 머물면서 성공하라고  
말한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  
라(막16:15).”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을  
위해 애쓰라고 말한다. 구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신다(마6:20).

우리는 자녀들에게 눈으로 확인하고 행동하라고 제안한다.

말씀은 그들에게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고후5:7).

이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약간은 직설적인 사실들의 빛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야심찬 계획들을 새롭게 숙고할 때이다.

1. 세상 모든 곳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멸망하고 있다.

2.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갖고 있다. 곧 복음이다.

3.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생명의 빵을 부당하게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홀히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더구나 영혼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이다.

4.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된 자들이다.

5.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에 대한 권리가 없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아져야만 한

다.

6. 우리가 우리 목숨을 구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잃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실제가 우리에게 속하게 될 것이다.

7. 백 년 후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삶만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도록 자녀들을 격려하는 부모들이 필요하다. 자신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아버지나 어머니 보다 더 사랑한다고 해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는 부모들 말이다. 자신의 딸들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여 구금된다 해도 경악하지 않을 부모들 말이다. 자신들의 입술로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첫째 자리에 모시는 사람이 삶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는 것임을 보여주는 부모들 말이다.

수십 년 전 한 아버지가 자신의 서재에 앉아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라고 그가 묻자 “아버지, 저 애드(Ed)예요. 아버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대

답이 들렸다. “들어와라 애드야.”

애드는 들어와 앉았다. 몇 마디 후 애드가 말했다. “아버지, 저 법학공부를 그만 두기로 결심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선교에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말했다. “이리 오너라. 우리 함께 기도하자꾸나.”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였다(행20:32).

이 아버지는 T. E. 맥컬리(McCully) 박사였다. 그의 아들 애드는 에콰도르로 갔고 쿠라레이(Curaray) 강가에서 야만적인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살해당했다. 맥컬리 박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면 자주 이렇게 덧붙였다. “오



늘날 돌아보니 애드가 제게 자신의 선교에 대한 소명을 말했을 때 그의 용기를 꺾거나 방해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지요.”

## 가시적인 성공 -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인가?

Johannes Pflaum

영적인 영역에서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 라고 말하거나 적합한 숫자를 제시할 수 있을 때는 ‘축복받



은 전도 집회’ 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선교사역이나 목회사역에서의 성장 역시 자주 영적인 성공과 수준의 측정도구로 간주된다.

만약 우리 주 예수님께서 참된 회개를 선사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려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축복 역시 경건한 성공에 대한 생각과 연결시킨다.

이때 ‘축복’ 과 이에 연결된 ‘경건한 성공’ (예를 들어 회개, 교회의 성장 등)은 원인과 결과의 원리로 간주되며 따라서 순종과 헌신과 기도의 결과로 여겨진다.

반대로 ‘경건한 성공’ 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을 자주 순종과 헌신과 기도의 부족이나 다른 영적인 요소들의 결여에 돌린다. 이로써 가시적인 ‘경건한 성공’ 이나 ‘축복’ 은 간접적으로 방법이나 운동, 사람

이 글은 독일의 기독교출판사인 CLV에서 나오는 소식지 fest+treu(군세계 충성되게) 2007년 1월호에 실린 것을 가져와 번역한 것입니다.

christian upgrade \_5, 6월호

에 대한 ‘기독교적 품질보증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축복하시면, 그 일은 모든 비판에 초월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누군가 비판적으로 캐물으면 그에겐 즉시 ‘용기를 꺾는 혹평가’라든가 ‘무정한 비판자’란 딱지가 붙는다. 이와 반대로 ‘경건한 성공’이 없을 경우 사람들은 교회나 사람 등을 처음부터 더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회개나 성장을 통해 축복하거나 인정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 어떤 영적인 원인이 있음에 틀림없다(예를 들어 기도가 부족하다든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든지 등등).

이런 유의 생각은 매우 경건하고 그럴듯하며 납득할 만하게 들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건한 사고방식이 또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역사에서 기인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 성경에서의 순종과 실패

우리가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큰 헌신과 충성스런 순종으로 주님을 섬겼지만 그 어떤 ‘경건한 성공’도 제시하지 못했던 몇몇 믿음의 모범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의의 설교자(벧후 2:5)였던 노아는 대홍수 이전세대에게 120년 동안 믿을만한 증거였다. 그의 모범적인 믿음의 삶과 중언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가족 외에 단 한 사람도 방주로 데려올 수 없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가장 정세가 어려울 때 미움을 받으며 유다에서 활동하였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충성스럽게 자신의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으며 지속적으로 새롭게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럼에도 그의 삶과 사역에서 영적인 각성이나 수많은 회심자의 형태로의 ‘축복’은 전

혀 일어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위대한 선교사였다. 그의 사역과 불타는 선교열정을 통해 주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그 역시 큰 헌신에도 불구하고 루스드라(행14)나 아데네의 아래고팍(행17)에서의 전도에서는 성공을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순종과 외적인 성공 간의 기계적인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다고 요약하여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전했지

만 눈에 보이는 ‘경건한 성공’ 과 이런 의미에서 ‘축복받은 역사’ 를 제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알고 있다.

## 성경에서의 불순종과 성공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명백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경건한 성공’ 을 받았던 예를 찾을 수 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민20) 하나님께서는 **가데스의 프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미혹하는 자 **발람**을 통하여(벧후2:15, 계2:14) 하나님은 구약에서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가장 엄청난 약속 중 하나를 계시하셨다(민24:17).

북 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패역한 왕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람과의 전쟁에서의 두 번의 승리를 받았다(왕상20).

**요나**는 그의 행동 때문에 고집 센 선지자로 묘사된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그것을 통해 선원들이 믿음을





갓게 되었다(요1:16). 이후에 그가 니느웨성의 멸망 받을 백성들에 대해 사랑이 없었음에도 그의 외침으로 아마도 모든 선지자들 중 가장 큰 성공이 그에게 주어졌다. 120,000명이 넘는 도시가 하나도 빠짐없이 회개하였다(요 4:11).

이로써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여 행하더라도 ‘축복받은 역사’ 나 ‘성장의 성공’ 혹은 ‘회심자의 숫자’ 를 주실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 하나님은 주권적 이시다. 변함없이!

축복, 성공, 양적 성장과 순종 내지 불순종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보는 모든 자의적인 경건한 ‘성공비법’ 과 설명시도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기본진리,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도구들’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행할 때에도 외적인 성장과 해당되는 축복을 주실 수 있으시다.

다른 한 편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고

큰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도 성공과 숫자적인 성장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 속 초대 교회의 엄청난 성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게 된다. 성령 강림 이후 엄청난 성장이 시작되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으로 증언되었다.

“.....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2:41).”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2:47).”

더 나아가면 아니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심판적인 개입이 묘사된다. 이 일로 그 누구도 감히 교회에 가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는 “.....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행5:13-14).” 란 내용을 읽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에 대한 명백한 암시를 갖게 된다. 사도바울의 축복받은 사역과 연관해서도 우리는 자유로운 구원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을 수 있다. 이에 관해 행13:48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 성경적인 분별이 필요하다!

한편으론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과 다른 한편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 사이의 성경적인 분별과 구분이 시급하다. 이러한 분별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은혜가 스스로 만든 인간적 경건과 혼동된다. 그밖에도 예수님의 교회는 이로 인해 모든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재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영향들에게 문을 열어 주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어권 지역에서도 이러한 비성경적인 ‘성공과 축복에 대한 생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근심스런 일이다.

**종전의 영적인 침체와 보편적인 쇠퇴를 통해 새로운 영적 부흥과 숫자적인 성장에 대한 요구가 생겨났다.**

## 성공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라!

그러므로 급속한 성장과 회심의 숫자들을 약속하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들 그리고 방법들을 고대하며 바라볼 위험이 크다.

그러나 성경을 토대로 해당되는 가르침이나 방법들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대신 효력이나 인상적인 회심자의 숫자가 종종 그 일의 영적이고 성경적인 정당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걱정스러운 경향은 경험과 성공을 강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계속 활력을 얻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성적이고 말씀에 근거한 생각은 점점 더 근거를 잃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건전하고 영적인 발전은 우리가 모든 인간적으로 경건한, 그러나 비성경적인 성공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서 제거할 준

비가 되어있을 때에만 주어질 수 있다.

## 영적인 긴장의 영역

성경에 의하면 축복과 각성적인 삶의 근원은 항상 오직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에 있다(스1:1, 5 ; 요3:8).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가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 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신자들을 권면한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계2,3장)은 다양한 여러 교회들이 자신의 영적 삶과 그리스도를 위한 빛을 잃지 않기 위해 승천하신 주님으로부터 회개를 촉구 받아야만 하는 곳이 어디인지 깨닫도록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영적인 긴장의 영역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는 종종 우리의 인간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이다(사55:8).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

순종함으로 영적인 삶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영적이고 각성적인 삶이 생겼 다 해도 이것은 우리의 공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이며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선택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돛단배 안에서 바람이 불거나 멈추도록 할 수는 없지만 돛을 달거나 내릴 수는 있다. 오직 돛이 달려 있을 때에야 바람이 배를 감쌀 수 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경건한 성공에 대한 생각’ 과 우리의 비성경적인 ‘성공비법’ 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성령의 지침에 대한 재고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힘쓰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시대에 새로운 부흥을 주십사 기도하자.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이 돌려지기 위해서.

## 파울리의 선행

카트야 볼프(Katja Wolff)



저는 파울리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파울리라고 불러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착한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어디든지 제가 있는 곳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계세요.

제가 크면 선교사가 될 거예요. 선교사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외국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하죠.

저는 지금 6살이에요. 하지만 아직 학교에 가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인쇄소에서 일하세요. 장미가 그려진 초콜릿 상자를 만드시죠. 그거 아시죠?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땅콩초콜릿 종이도 우

리아빠가 인쇄하시는 거예요.

저는 벌써 예수님과 함께 아주 멋진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중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드릴게요.

### 1. 악마 사건

내 친구 다니엘은 손 인형들을 갖고 있다. 손 인형은 손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다. 손을 집어넣으면 인형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인형을 위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진짜 연극을 할 수 있다.

어쨌든 다니엘은 어릿광대와 왕과 공주 그리고 악마를 갖고 있다. 다니엘은 악마가 특히 멋있다고 했다.

나는 악마를 잡아먹으라고 악어를 골랐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엔 어릿광대를 골라 악마를 때리게 했다. 그러나 소용 없었다. 그런 다음 왕은 악마에게 사라지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악마는 웃기만 했다. 그러

이 이야기는 카트야 볼프의 책  
'파울리의 선행(Paulis gute Taten)' 중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christian upgrade \_5, 6월호

더니 공주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때 나는 악마를 재빨리 지옥으로 보내버려야만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악마를 잡고 화장실로 뛰어갔다. 변기에 집어넣고 물을 내렸다. 악마가 사라졌다.  
얼마나 기뻐던지! 공주를 구해냈다!  
그 순간 물이 변기에서 욕실바닥으로 흘러넘쳤다. 악마가 변기를 막아버렸던 것이다. 이때는 기도밖에 다른 수가 없었다.  
다니엘이 화장실문 앞에 서서 소리를 질렀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변기 옆에는 솔이 놓여 있었다. 나는 솔을 변기 안으로 쏘서 넣었다. 물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꾸룩꾸룩 소리가 나더니 물이 빠졌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문을 닫고 만족해하며 집으로 갔다. 나는 내가 자랑스러웠다. 착한 일을 한다는 건 참 좋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는 일도, 아니 적어도 공주를 구하는 일은.



## 2. 자동차 사건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 어제 나는 크레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는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뒤에

물고기를 그려 넣었다. 물고기의 뜻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림에 글씨도 써 넣었다. ‘예수님이 타고 이쎬요!’

그렇게 한 자동차가 아홉 대쯤 되는 것 같다. 나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글씨 쓰는 법을 정확히 모른다. 정말 유감이다. 왜냐하면 우리 이웃집의 홀베르그씨가 엄마에게 불평을 하셨기 때문이다.

아마도 아저씨는 자기 자동차에 틀린 글씨가 쓰여 있어서 화가 나신 것 같다. 아저씨는 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니까.

아무튼 엄마는 그것을 지워야만 했고 자동차에 흠이 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야 했다. 그리고 나머지 여덟 대의 자동차에도 그렇게 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불평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런 다음 나는 사과를 하러 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홀베르그씨 집으로 갔다(예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같이 가셨다). 나에겐 물고기 모양 스티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가져갔다.

나는 벨을 눌렀다. 홀베르그씨가 문을 열었다. 나는 스티커를 아저씨에게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아직 글씨를 잘 못 써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걸 아시잖아요. 엄마가 그

예쁜 물고기를 아저씨 자동차에서 지워버린 걸 슬퍼하지 마시라고 이 스티커를 대신 가져왔어요. 이게 어쨌든 훨씬 더 예뻐요!”

홀베르그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셨다.

그 스티커는 아저씨 아들이 자기 오토바이에 붙였다. 이제부터 예수님은 오토바이에도 함께 타고 계신다.

사람들이 나한테 화를 내지 않도록 빨리 글씨를 잘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

### 3. 개(에 관한) 사건

복음은 모든 창조물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동물들도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길 끝에는 높은 울타리가 둘러 있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다. 정원에는 항상 개가 한 마리 있다. 개는 그르렁 거리며 짖어대면서 이빨을 드러낸다. 아마도 그 개가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인 것 같다.

암튼 나는 갔다. 먼저 울타리 뒤에 섰다. 개가 짖었다. 나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다. “예수님이 널 위해 돌아가셨어!”

개는 계속 짖었다. 나는 더 크게 소리 질렀

다.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그리고 널 용서 하셔!” 그 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더 사납게 짖어댔다. 아니면 혹시 너무 기뻐서?

그래서 나는 대문을 열었다. 개가 짖으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개는 내 앞에서 높이 뛰어 올랐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 개는 아주 크고 똥똥하기 때문이다.

내가 개를 쓰다듬으려고 하자 개가 내 팔을 덥석 물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물려고 그랬다고는 믿지 않는다.

“잘 들어봐” 라고 나는 말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어. 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잘 될 거야!”

이때 한 남자가 현관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르코, 얌아!”

개는 즉시 몸을 낮추고 조용해졌다.

그 남자는 나에게 소리쳤다. “너 미쳤니? 어서 꺼져!”

그래서 나는 다시 나왔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아르코를 찾아가 볼 꺼다. 내가 얘기한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봐야지.



#### 4. 지하실노래 사건

지하실은 아주 어둡다. 어쨌든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둡다. 그런데 불을 켜도 아주 밝아지지 않는다.

암튼 우리 지하실에는 오래된 냉장고가 하나 있다. 엄마는 거기에다 아빠의 생일파티를 위해 샴페인 두병을 넣어 두셨다. 그 샴페인은 진짜 프랑스에서 생산된 아주 비싼 제품이었다.

손님들이 오시기 직전 엄마는 나는 지하실로 보냈다. 첫째로, 엄마는 시간이 없었고 둘째로, 이제는 내가 다 컸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하실로 내려갔다(그리고 예수님도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내려가셨다).

병을 손에 들고 나는 매우 기분이 좋아 졌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과 같은 노래를 하나 만들었다. “이 샴페인을 축하해 주세요, 우리가 맛있게 마시도록!

이 노래를 나는 아주 크게 불렀다. 그리고 박자에 맞춰 병을 흔들었다. 곧 손님들이 오셨고 모두는 손에 병을 하나씩 들고 오셨다. 아빠가 첫 번째 샴페인 병을 따려고 하셨는데 홀베르그씨가 그 병을 뺏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번 전문가에게 맡겨보시

죠!”

아빠는 그 샴페인 병을 아저씨에게 드렸고 홀베르그씨는 아주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다.

잠시 후 뽕 소리가 나면서 홀베르그씨는 샴페인을 뒤집어 쓰셨다. 무슨 이유인지 샴페인이 터져버린 게 틀림없었다.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홀베르그 부인이 웃으셨다. “꼭 배의 진수식 장면 같아요!”

홀베르그씨는 전혀 웃지 않으셨다. 집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 입으셨다.

다른 손님들은 오렌지 주스를 마셨다. 그 다음 파티는 아주 훌륭했고 저녁에 아빠는 두 번째 샴페인 병을 따셨다. 아주 조심스럽게. 그 병은 폭발하지 않았다.

나도 한 모금 마실 수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샴페인이 아주 맛있다고 말했다. 정확히 내가 노래한 그대로였다!

## 5. 돈 사건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어린이들이 살고 있다. 그 아이들의 부모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면 그들에게 부모가 없기 때문인 경우도 있다. 그 아이들





은 그래서 아주 말랐고 아주 큰 눈을 갖고 있어 마치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듯이 보인다. 몸에 파리가 기어 다니는데도 쫓을 생각을 안 한다. 왜냐하면 힘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엄청 울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대로 놔두시지?” 라고 묻는다. 하지만 나는 “왜 우리가 이 일을 그대로 놔두나?” 하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나는 갈색으로 아이 그림을 그렸다. 실제로 그냥 선 하나를 그린 것과 같았다. 그리고 위에도 아주 큰 눈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파리도 많이 그렸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 똑같이.

그리고 나서 나는(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도 내 옆에 함께) 밖으로 나갔다. 집집마다 벨을 누르고 그림을 보여줬다. “아프리카에 사는 많은 어린이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줄 수 있는 돈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을 꽂아버렸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내 깡통에 돈을 넣어주었다. 홀베르 그씨는 20유로나 넣어 주셨다. 깡통에는 40유로나 모였다. 아빠가 돈을 보태어 50유로를 만들어 주셨고 아프리카의 마른 어린이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예금계좌에



그 돈을 넣어 주셨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태어나도록 만드시지 않는가. 그리고 죽을 때는 자기 돈을 하늘에 가지고 가지도 못한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에서 큰 보물을 발견하게 된다. 자기가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거기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면 홀베르그씨는 아주 영리하다. 20 유로나 하늘에 모아 두었으니 말이다!

## 6. 할로윈 사건

할로윈이 되면 마녀나 유령으로 분장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집에 찾아갈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무섭게 만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사탕이나 초콜릿을 준다. 두렵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무섭게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해선 안 된다. 뭔가 달라야 한다. 나는 할로윈을 맞아 멋진 생각을 해 냈다.

좋은 성경말씀이 쓰여 있는 종이에 싸인 사탕이 있는데 이 사탕을 엄마가 사 주셨다. 그리고 나는 천사로 분장했다. 어두워졌을 때 나

는 천사가 되어 집집마다 찾아갔다.

사람들이 문을 열면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악마가 아니라 천사예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언가를 주려고 왔어요. 천사들과 악마들의 차이를 아실 수 있게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준비한 사탕을 주었다.

사람들은 물론 깜짝 놀랐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게 억지로 사탕을 받도록 했다. 나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다. 그러니 어찌란 말인가?

엄마는 내가 거의 오십만 칼로리나 되는 군것질 거리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른 마녀나 유령들은 이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

## 5월 생활실천 '그리스도인과 가정'



### 그리스도인과 가정

하나님께서서는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관계들을 설명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부, 부모님과 자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사랑 표현하기.

### ▶ 열정은 부부관계에 있어 중요한 국면 ◀

이 글은 스위스의 기독교사이트인 [www.livenet.ch](http://www.livenet.ch)에 실린 글을 가져와 번역한 것입니다.

(심리학자이며 부부상담가인 울리히 기제쿠스 박사(Dr. Ulrich Giesekeus)의  
결혼생활에 관한 인터뷰 중에서)

### 질문: 어떻게 열정을 가꾸어야 하나요?

Dr. Ulrich Giesekeus: 배우자들은 그저 옆에서 함께 사는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지만 항상 새롭게 배우자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배우자를 항상 새롭게 알아가고 연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때때로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싸움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화가 전혀 없거나 그저 지루하게 함께 있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싸움이 더 나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적인 태도는 결혼생활에서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과 개인적인 자유공간 그리고 열정은 결혼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6월 생활실천 '그리스도인과 환경'



### 그리스도인과 환경

그리스도인이 환경문제에 민감해야하는 이유는 생태계 위기의 극복은 물론 자연계의 창조질서의 조화와 미의 회복을 위해서는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타락 이전의 창조 질서에서의 바른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품 이용하기

### ▶ 생명밥상 빈그릇 서약 캠페인 ◀

(출처: 이 글은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가져왔습니다. [www.greenchrist.org](http://www.greenchrist.org))

몸과 마음, 땅을 살리는 생명밥상 빈그릇 서약 캠페인

## 생명의 밥 남김없이 먹겠습니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요6:51)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요6:12)

생명밥상 빈 그릇 운동은 건강한 먹거리로 생명의 밥상을 차려 공손히 먹고, 음식을 남겨 버리지 않음으로 내 몸과 마음, 하나님의 창조세상을 살립니다. 이 운동은 크게 다섯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 창조세계를 살리는 살림운동입니다.  
두울, 청빈(淸貧)을 실천하는 경제운동입니다.  
세엿, 작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눔운동입니다.  
네엿,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건강운동입니다.  
다섯,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주님을 섬기는 신앙운동입니다.

## 광고

- 곧 출간될 CLM 토론식성격적응훈련교재(가제)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재가 출간되면 성경공부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저희가 신청한 clm.kr 도메인이 1순위 당첨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인으로살기운동 기존 도메인 주소인 'clm.or.kr'에 이어서 'clm.kr'로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www.clm.or.kr](http://www.clm.or.kr) / [clm.or.kr](http://clm.or.kr) / [www.clm.kr](http://www.clm.kr) / [clm.kr](http://clm.kr) 주소로도 모두 CLM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합니다.

### 크리스찬 업그레이드에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신앙과 삶에 관한 경험이나 아이디어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우:136-020)  
인터넷: [www.clm.or.kr](http://www.clm.or.kr)(나눔의 방) 이메일: [clmwm@clm.or.kr](mailto:clmwm@clm.or.kr)

### Christian-Upgrade 구독 안내

- Christian-Upgrade는 현재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국내에 한해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크리스찬 업그레이드 Christian Upgrade

- ▶ 주 소: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우136-020)  
☎ 02)744-6678
- ▶ 후원 안내: 제작비 지원을 통해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이 책을 보낼 수 있습니다. 권당 제작비는 1000원입니다.
- ▶ 후원계좌번호: 국민은행 491001-01-066965 / 예금주: 그리스도살기운동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운동](CLM)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입니다.

## 크리스찬 업그레이드는 3가지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합니다

-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겸손함을 유지하는 크리스찬업그레이드가 되고자 합니다.
- 기독교적 세계관과 생활방식이 바람직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한 요소임을 확증할 수 있는 크리스찬업그레이드가 되고자 합니다.
- 크리스찬 삶의 가치는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켜가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를 구원시킬 수 있는 핵심가치임을 고백하고 알리고자 합니다.

- 펴 낸 곳 : [도서출판 CLP]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운동 출판)  
서울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우136-020)  
☎ 02)744-6678
- 펴 낸 팀 : 오승희, 김신정, 이해란
- 펴 낸 일 : 2007. 5. 3.
- 홈페이지 : [www.clm.or.kr](http://www.clm.or.kr)